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연구 - 한난색을 중심으로 -

임지영[†] · 강경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A Study on the Harmony according to Tone on Tone Coloration of Shirt and Necktie - On Warm and Cool Color -

Ji-Young Lim[†] and Kyung-Ja K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5. 5. 2. 접수 : 2005. 7. 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harmony evaluation and the effects used clues on harmony perception in terms of 32 tone on tone coloration of male shirt and necktie by male and female students when it comes to the coloration of male clothes' shirts and necktie, after shirts matched necktie with warm and cool color, such as red, blue, and changed only value among three attributes of color.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to the red, light-dull, dull-dark was evaluated as harmonized coloration regardless of area-ratio by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s to the blue, vivid-dark, light-dark, dull-dark was evaluated as harmonized coloration regardless of area-ratio by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mong 16 red tone on tone coloration stimuli, both female and male students evaluated the same 10 set as harmonized, but among 16 blue tone on tone coloration stimuli, female students evaluated 9 set, male students 12 set, so proved that male's range of harmony more extensive than that of female. It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on red dull shirt and vivid tie, blue dull shirt and dull tie combination. Females were positive to red dull shirt and vivid tie combination, males were negative, on the other hand, males were positive to blue dull shirt and dull tie combination, females were negative.

Key words: harmony(조화감), tone on tone coloration(톤 온 톤 배색), shirt(셔츠), necktie(넥타이).

I. 서론

최근 남성복 시장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복을 통한 자기 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남성 소비자의 변화된 패션 의식에 맞추어 남성복 시장은 점차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될

추구하게 되어 패션의 감성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성 정장의 개념이 확대되어 포멀 정장 뿐만 아니라 캐주얼 정장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남성복이 캐주얼 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비교적 남성복은 셔츠, 넥타이, 양말, 구두 등과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도털 패션화가 잘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에 일어난 커다란 사회·분

[†] 교신저자 E-mail : cloth1012@banmail.net

화적 변화로 인해 남성복은 더욱 캐주얼화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남성 의복 가운데 넥타이를 통해 자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의 정장색은 검정, 회색, 갈색 등으로 비교적 그 범위가 좁아 남성복 착용자의 개성을 살리는데 셔츠와 타이의 코디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왔다. 또한 붉이나 여름 또는 실내에서 재킷을 벗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셔츠와 타이의 코디가 착용자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서는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주로 셔츠와 타이의 코디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문양이나 배색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배색은 기본적으로 2색의 배색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되므로 색상상에 의한 조화는 물론 톤 차이에 의한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 연구들¹⁻³⁾에서는 남성복의 색상과 넥타이 또는 여기에 부디를 조합시켜 이들 변인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성복의 배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배색 방법에 따른 조화감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2색 배색 즉 톤 인 톤이나 톤 온 톤과 같은 배색 방법에 따라 조화감을 평가한 선행 연구^{4,5)}가 이루어졌으나 한복 배색에 한정시켜 이루어졌다. 또한 한복 배색에서 조화로운 배색이 남성복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색시 조화감은 배색 방법은 물론이고 적용되는 대상이나 목적 등에 따라,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여 조화의 범위가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복의 기획이나 디자인에서 색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도 지금까지 남성복에서 셔츠와 넥타이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성복에서 다양한 배색 방법에 따른 조화감 정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색채 조화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하고 있어 개인 차이가 크다. 따라서 남성복의 셔츠와 넥타이의 색을 다양하게 배색해 봄으로써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수량화 과정을 통해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색이나 배색 유형을 한번에 다룰 수가 없으므로 먼저 한복배색을 중심으로 빨강, 파랑을 선정한 후 명도에 변화를 준 다수의 톤 온 톤 배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느끼는 조화의 정도를 판단하게 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수량화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음으로서 남성 소비자들의 조화에 대한 감성을 파악하고 남성복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첫째, 남성복에서의 셔츠와 넥타이의 톤 차이 즉,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 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시각 반응에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의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색이란 일반적으로 빛에 의하여 생기는 시감각의 하나이며 물체를 구별하고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상의 형태와 크기를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미묘한 시각적 요소이다. 복식에 표현된 색채는 복식의 형태와 함께 복식의 존재를 구체화시킨다. 특히 실루엣의 변화가 적으며 단순한 의복에서 색이 가지는 비중은 크다⁶⁾. 따라서 배색의 목적은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디자인의 전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식에 사용되는 배색은 색 상환에서 각도 차이를 이용한 배색과 톤에 의한 배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⁷⁾.

- 1) 남미우, 강혜원,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18권 3호 (1994), pp. 311-326.
- 2) 강경자, 임지영, “넥타이의 색과 부디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0권 5호 (1994), pp. 735-768.
- 3) 최유진, 이명희, “남성의 재킷, 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권 6호 (2004), pp. 131-140.
- 4) 강경자,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시각반응 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5권 4호 (2001), pp. 731-742.
- 5) 강경자,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시각반응 연구(제2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6권 3/4호 (2002), pp. 431-453.
- 6) 김민자, *복식미학강의 1* (서울:교문사, 2004), p. 162.
- 7) 추신형, 김영인, “녹색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계획,” *복식* 31권 (1997), pp. 33-46.

배색 조화 이론은 1835년에 발표된 슈브뢰의 배색 조화 이론을 필두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설이 발표되었다. 조화에 대하여 오스트발트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기본 요소에 준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기본 전체에 입각해서 전개했다⁸⁾. 배색이란 복수의 색을 의도적으로 조합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에 반해 색채 조화는 조합된 색이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갖춘 상태로 색들의 관련 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것으로 정의된다⁹⁾. 이렇듯 색채 조화에는 주관적 미의 판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색채 조화론의 정량적 색채 조화는 주관적인 측면의 결여로 문제시되고 있다¹⁰⁾.

Moon과 Spencer는 색채간의 조화를 분류할 때 한 속성만 같은 경우, 세 속성이 다를 경우, 두 속성이 다르고 나머지 한 속성만 같은 경우, 세 속성이 모두 다른 경우로 나누고 있다. 한 개의 속성이 다를 경우에는 명도만 다른 경우, 채도만 다른 경우, 색상만 다른 경우가 있다¹¹⁾고 하여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조화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색상을 기준으로 한 조화의 방법은 적당치 않고 오히려 명도, 채도 차이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고 보았다¹²⁾. 따라서 색상과 명도, 채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전개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배색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 배색에서 조화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Rood는 자연광 밑에서 관찰되는 색 즉, 햇빛을 받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의 색은 조화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본은론 배색의 조화 원리이다. Munsell은 완전히 백색이 이루어진 색은 회전판에 놓으면 명도 5의 회색이 되는 색으로써 이와 같은 색끼리는 조

화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색면적의 밸런스를 명도와 채도의 비로 나타내었다. Judd는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은 조화되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색은 조화되며, 어떤 색이라도 공동성이 있으면 조화되며, 여러 색의 관계가 병렬하면 조화된다고 하였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색채 조화론을 펼친 Moon & Spencer는 조화의 종류를 '동일성의 조화'와 '유사성의 조화', '대조성의 조화'인 세 가지로 분류하고, 또 '에배한 관계의 배색'은 부조화라고 하였으며 배색의 좋고 나쁨은 질서의 요소와 복잡함의 요소에 의해 산출된다하여 명도=질서의 요소/복잡성의 요소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¹³⁾.

색상의 조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색상을 알맞은 명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체로 명도차가 클수록 조화되기 쉽고 명도차가 적을수록 조화되기 어렵고 채도나 명도가 높은 색은 작은 면적으로, 채도나 명도가 낮은 색일수록 큰 면적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명도는 색상의 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색상과 마찬가지로 명도도 관계가 에배할 때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¹⁴⁾. 명도차이는 1단계 이상인 경우가 바람직하며 대비의 조화에서는 5-6단계의 차이가 나는 것이 효과적이다¹⁵⁾. 낮은 명도보다 높은 명도 또는 중명도에서 명도차가 더욱 분명히 지각되고 낮은 범위에서는 과량과 같은 단파장의 색상들만 색채 차이가 잘 나타난다¹⁶⁾. 그러나 Winakor & Navarro의 무채색의 명도와 의복 유형이 의복 착용자의 호감도에 관한 연구¹⁷⁾에서는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의복 유형은 체계적이고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는 상당한 개인 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조화의 범위가 좁기도

8) Faber Birren, *Psychology Answers the Problem of Color Harmony* (1934), p. 136.

9) Johannes Itten, *The Art of Color* (New York: Reinhold Pub., 1996), p. 25.

10) 조민정,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 25.

11) 유송옥, *복식의장학* (서울: 수화사, 1990), p. 247.

12) 김수석,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문화사, 1993), p. 132.

13) 조필교, 정혜민,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1998), pp. 99-112.

14)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1992), p. 133.

15) 이호경,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1997), p. 85.

16) William Charles Libby, *색채와 구성적 감각, 이양자 역* (서울: 미진사, 1981), pp. 36-37.

17) G. Winakor and R. Navarro,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 (1987), pp. 40-48.

하고 넓기도 하다. 즉 폭이 꽤 넓은 색채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폭이 좁은 사람도 있다¹⁸⁾. 近江原太郎 外¹⁹⁾의 연구에 의하면 공업 디자이너나 건축 디자이너는 조화의 수가 적었고 의복 디자이너나 미술 교육 쪽은 조화의 수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강경자²⁰⁻²²⁾는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등을 중심으로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체계화 하였다. 전 배색 방법에서 한국 여대생은 조화감을 느끼는 배색의 분포 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빨강 톤 온 톤 배색 16가지 중에서 한국 여대생은 한복의 상하에 어떤 톤이라도 같은 톤끼리 배색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화되는 톤 조합은 명도 차에 의한 색의 중량감에 의해 명도가 낮은 톤이 아래에, 명도가 높은 톤이 위에 놓이는 것이 대체로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색상용 기준으로 한 톤 인 톤 배색 방법보다 톤 온 톤 배색이나 무채·유채 배색과 같은 명도 차에 의한 배색이 상대적으로 더 조화 범위가 높게 나타나 Moon & Spencer의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최근 남성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남성 패션에 표현된 이미지²³⁻²⁵⁾, 넥타이에 반영된 패션 트렌드에 관한 연구나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넥타이 개발에 관한 연구^{26,27)}, 남성복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28,29)}와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 이미지와 선호도 연구³⁰⁾ 등이 이루어졌다.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은미, 강혜원³¹⁾은 20대 관찰자의 경우 정상과 유사색의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하였다. 송선옥, 이인자³²⁾는 남자 의복 유형과 얼굴형 및 체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의복색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 또 강경자, 임지영³³⁾은 넥타이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성복에 있어 넥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넥타이 무늬는 매력성 요인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능력성과 독특성 이미지에는 넥타이 색이, 온유성 요인에는 의복색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온유성 요인을 제외한 세 요인에서 넥타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복에 있어 작은 부분이지만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최유진, 이명희의 연구³⁴⁾에서 능력성, 선호도 평가, 남성성에는 의복색이, 품위성과 원시성 요

18) 고을한, 김동욱,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서울: 미진사, 1999), p. 17.

19) 近江原太郎, 兒玉晃, 細野尚志, “美術家による調和感評価の類型化,” *日本色彩學會 第2回大晦 講演論文集* (1972).

20) 강경자(a), *Op. cit.*

21) 강경자(b), *Op. cit.*

22) 강경자,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3보)-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7호 (2004), pp. 962-973.

23) 이빈선,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6호 (2003), pp. 776-787.

24) 김소영, 양숙희, “세기말 남성패션에 나타난 표상성,” *복식문화학회지* 8권 2호 (2000), pp. 197-204.

25) 김운경, 이경희,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4호 (2002), pp. 51-63.

26) 이호진, 김주연, “넥타이에 반영된 패션트렌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학술대회지* (2003), p. 82.

27) 박은경, 홍지원,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넥타이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넥타이 길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1호 (2003), pp. 1198-1207.

28) 박순천, 이순홍,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 디자인(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1호 (2002), pp. 1547-1557.

29) 박순천, 이순홍,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 디자인(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1호 (2003), pp. 1260-1269.

30) 박영희,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복식* 54권 4호 (2004), pp. 113-127.

31) 이은미, 강혜원, “의복단서 및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p. 197-210.

32) 송선옥, 이인자,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2000), pp. 369-378.

33) 강경자, 임지영, *Op. cit.*

34) 최유진, 이명희, *Op. cit.*

인에는 넥타이 색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란색 셔츠와 파란색 재킷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가 배색될 때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되었고, 셔츠는 흰색, 하늘색, 파란색 순으로 선호하였고, 넥타이는 파란색 계열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상에서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며 의복색과 넥타이색, 무늬 등이 남성복 이미지 평가에 중요한 지각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한복과 유형이 다른 셔츠와 넥타이 배색시에는 색상은 동일하더라도 톤 차이에 의해서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일 문화권에 있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힘으로서 배색 조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넥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본 연구에서 의복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서 5월에 걸쳐 백화점과 할인마트, 로드삼을 방문하여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흰색, 파랑계열을 비롯하여 보라나 분홍뿐만 아니라 트렌드 컬러인 초록까지 엷은 컬러에서 짙은 컬러까지 다양한 색상과 톤으로 나타나 종전과는 달리 남성들의 셔츠나 넥타이의 색상이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셔츠와 타이의 색을 다양한 배색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의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셔츠·넥타이를 착용한 남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하였다. 먼저 남성복에서는 넥타이가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 시선이 넥타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리에서는 전신이나 상체 제시 여부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

연구³⁵⁾를 참고로 하여 전신과 서 있는 상태에서 팔길 이까지의 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의 두 그림을 유채색으로 배색되도록 한 4장의 사진을 판단 집단(대학생, 대학원생 선별 집단)에게 제시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반복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지 평가에서 대체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 제시된 상반신 사진으로 자극물의 모델은 20대 우리나라 남성의 기본 체형³⁶⁾의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Canon IXUS 400)로 모델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수정한 후 주 작업은 CAD system(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프린터기(hp9600)로 출력하였다. 촬영된 모델은 자극물에서의 얼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드럽고 흐린 얼굴로 수정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먼저 2가지 색상인 빨강, 파랑을 셔츠와 넥타이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작된 색상을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넥타이에 각각 미비드, 라이트, 닐,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조작한 후 이들 톤을 셔츠와 넥타이에 차이 나도록 조합하였다.

셔츠는 레귤러 셔츠를 사용한 기본 드레스 셔츠이며, 넥타이는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9.5cm이고 길이가 140cm인 일반적인 형태로 문양이 없는 단색의 타이를 사용하였다.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 선정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 한난색과 유행색이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빨강, 파랑, 보라, 초록 4가지 색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난색인 빨강과 흰색인 파랑만을 사용하였다. KBS한국색채연구소의 실용한국표준색표집에 근거하여 선행 연구³⁷⁾를 참고로 하여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미비드, 라이트, 닐, 다크의 4가지 톤을 사용하였다. 셔츠와 넥타이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표 1>의 8가지의 색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컬러 차트를 출력한 후 출력된 컬러를 참고로 제시된 색과 가장 근접한 컬러를 만든 후, 이 컬러를 다시 사진의 셔츠와 넥타

35) 강경자, 임지영, *Op. cit.*

36) "국민표준채워조사," *사이즈코리아* (1997); available from <http://sizekorca.ais.go.kr/>

37) 강경자(b), *Op. cit.*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 톤	본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 (Red)	5R 4/14	5R 8/6	5R 5/6	5R 2/6	
파랑 (Blue)	5B 5/10	5B 8/4	5B 6/4	5B 2/4	

이에 맵핑시켰다. 맵핑시킨 컬러 또한 처음 지정된 컬러와 일치할 때까지 수정하여 컬러를 최종 완성하여 만든 총 32개(2색×4톤×4톤)의 자극물이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통제하였다.

2) 자극물의 평가

본 연구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피험자는 남·여 대학생으로, 독립변인은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 2가지(빨강, 파랑)와 넥타이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셔츠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로 하였다. 이들 독립변인의 조합에 의해 총 32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여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32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 효과를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 하였다.

3)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위해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 과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 미분 척도를 제시하였다.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고 오른쪽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어 자료를 수광화 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 남·여 대학생 각

192명씩 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5월~9월초에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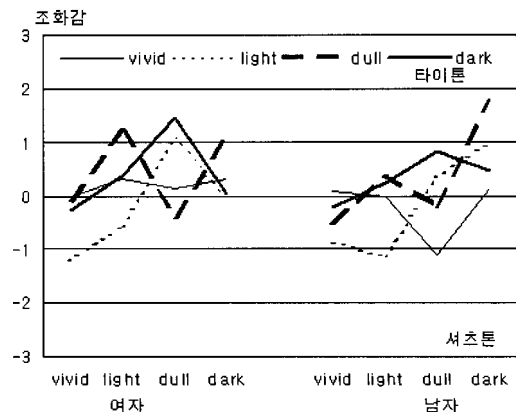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 방법은 조화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사후 분석으로 L.S.D(최소 유의차 검증)를 실시하였다. 또 그룹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를 알아보기 위해 4 원변량분석을 하였고 각 변인별 차이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은 2가지 셔츠색 한색과 난색인 빨강, 파랑을 각각 셔츠와 넥타이에 동색이 되도록 한 후 채도는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 넥타이의 톤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이 되도록 조작한 후 셔츠와 넥타이의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켰다. 조합된 32개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남·여 대학생에게 평가시켜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빨강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4가지 톤의 빨강색 셔츠와 넥타이를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빨강 톤 온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표 2〉 빨강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조화감 비교

색상	셔츠톤 타이톤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톤(Dull)			다크(Dark)			F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빨강 (Red)	Vivid	0.00	0.06	.091	0.31	0.00	.520	0.14	1.12	2.831**	0.30	0.12	.390	.185	2.459
	Light	-1.19	-0.85	-.736	-0.57	-1.15	1.022	1.08	0.33	1.344	-0.04	1.00	-1.875	6.942**	6.248**
	Dull	-0.08	-0.54	.906	1.21	0.39	1.617	-0.40	-0.18	-.379	1.08	1.73	-1.278	4.792**	6.885**
	Dark	-0.29	-0.21	-.142	0.36	0.25	.161	1.45	0.81	1.063	0.04	0.46	-.922	3.153*	1.024
	F값	2.407	.989		3.310*	2.474		5.212**	4.347**		2.073	3.680*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셔츠톤은 a>b>c, 타이톤은 A>B>C로 표시.

*P<0.05, **P<0.01.

1) 넥타이색의 톤 변화에 따른 남·여 대학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셔츠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타이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빨강색의 비비드톤 셔츠와 4가지 톤의 타이가 조합될 경우 셔츠와 같은 톤인 비비드톤 타이를 조합시켰을 때만 조화되고, 다른 톤과는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남·여 대학생은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비비드 셔츠와 덜톤의 타이가 조합될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하게 반응하여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면적이 넓은 셔츠에 비비드톤을, 면적이 좁은 넥타이에 라이트톤을 배색할 경우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복 배색을 연구한 선행 연구(강경자, 2002)의 결과에서 면적이 넓은 빨강 비비드 치마에 면적이 좁은 라이트 저고리는 잘 조화된다고 하여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치마와 저고리, 셔츠와 타이에서 차지하는 비비드와 라이트톤의 번적비가 유사함에도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복 유형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어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빨강색의 라이트톤 셔츠를 4가지 톤의 타이와 조합할 경우 여대생들은 넥타이의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여 모두 같은 톤인 라이트톤 타이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로 지각하였고 이러한 반응은 남자 대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톤과는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남·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라이트톤 셔츠에 덜톤의 넥타이를 조합하는 경우 여자 대학생들은 가장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라이트톤의 셔츠에 비비드톤의 넥타이를 배색할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비비드 셔츠에 라이트 넥타이를 조합한 경우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남·여 모두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타이는 어울리지만 비비드 셔츠에 라이트 타이는 어울리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빨강색의 덜톤 셔츠와 4가지 톤의 타이를 조합할 경우 넥타이의 톤 즉 넥타이의 명도 변화에 따라 남·여 모두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자는 같은 톤인 덜톤의 타이를 제외한 다른 톤의 타이 즉 다크, 라이트, 비비드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반면, 남자는 다크, 라이트톤 타이와는 조화되고 특히 비비드톤과의 조합이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여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배색은 덜톤의 셔츠에 비비드톤의 넥타이로 나타났다. 즉 이들 배색을 여대생은 조화로운 배색으로, 남자는 무조화 배색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셔츠와 넥타이 배색이 동일한 덜톤일 때는 남·여 모두 조화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치마·저고리의 배색에서 덜치마와 라이트톤의 조합은 긍정적이나 같은 덜톤

일 때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빨강색의 다크톤의 셔츠를 4가지 톤의 타이와 조합할 경우 여자는 라이트톤을 제외한 덜, 비비드, 다크톤과 조화된다고 지각한 반면 남자는 다크톤의 셔츠에 넥타이톤 즉 넥타이의 명도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덜, 라이트, 다크, 비비드의 순으로 조화가 잘 된다고 지각하였으며 특히 덜톤의 타이와 배색할 때 가장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같은 톤인 다크톤 타이와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남·여간에 공통된 반응을 보인 반면 라이트 톤 넥타이와 배색하는 경우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한 여대생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2) 셔츠색의 톤 변화에 따른 남·여 대학생의 조화감 지각

빨강색의 비비드톤 넥타이와 4가지 톤의 셔츠와 배색할 경우 여자는 대체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고, 남자는 덜톤의 셔츠를 제외한 3가지 셔츠가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남·여 모두 셔츠색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비비드톤의 타이와 덜톤 셔츠의 조합에서는 남·여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여 여자와는 달리 남자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비비드와 덜, 덜과 비비드의 조합은 셔츠와 타이 어느쪽에 배색하더라도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라이트톤의 넥타이를 톤이 다른 4가지 셔츠와 배색할 경우 남·여 모두 셔츠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여 모두 라이트톤 타이는 비비드, 라이트톤 셔츠와의 조합에서는 부정적으로, 덜톤셔츠와의 조합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공통된 반응을, 다크톤의 셔츠와는 남·여간에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넥타이와 셔츠의 톤이 동일한 라이트톤일 경우에는 남·여 성별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라이트톤의 치마, 서고리를 미국 여대생은 조화되는 것으로, 한국 여대생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 결과(강경자, 2002)에서 한국 여대생과 일치하였다. 이는 의복 형태에 상관없이 밝은 톤인 라이트와 라이트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덜톤의 넥타이를 톤이 다른 4가지 셔츠와 배색할 경우 남·여 모두 셔츠색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라이트와 다크톤의 셔츠와는 조화되고 특히 다크톤 셔츠와 가장 잘 조화되었다. 그러나 비비드, 덜톤의 셔츠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남·여간에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덜톤의 넥타이에 셔츠색의 톤을 변화시킬 경우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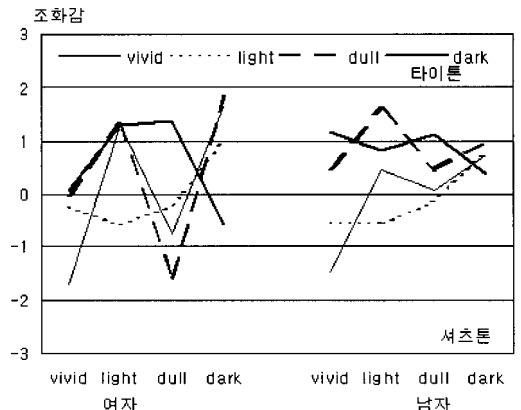
다크톤의 넥타이를 톤이 다른 4가지 셔츠와 배색할 경우 비비드톤의 셔츠와의 배색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라이트, 덜, 다크톤과의 배색은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남·여 모두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여자는 다크톤 타이와 조합할 경우 셔츠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덜톤의 셔츠와 조합될때 가장 높은 조화감을 보였다.

2. 파랑 톤 은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4가지 톤의 파랑색 셔츠와 타이로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 넥타이색의 톤 변화에 따른 남·여 대학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셔츠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타이톤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톤의 파랑 셔츠를 4가지 톤의 넥타이와 각기 배색할 경우 남·여 대학생은 넥타이톤 즉 넥타이의 명도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



<그림 2> 파랑 톤 은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표 3〉 파랑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남·여 대학生の 조화감 비교

색상 타이논	서츠톤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t값	여자	남자
파 랑 (Blue)	Vivid	-1.71	-1.45	-.616	1.29	0.46	1.458	-0.75	0.07	-1.562	1.65	0.73	1.635	26.242***	4.833**		
		aA	aA		cB	b		bAB	b		cB	b					
	Light	-0.23	-0.54	.501	-0.58	-0.54	-.055	-0.21	-0.17	-.069	1.00	0.77	.369	2.027	1.688		
		B	AB		A			B			B						
	Dull	0.00	0.50	-.743	1.32	1.56	-.506	-1.59	0.45	-2.822**	1.82	0.96	1.459	15.186***	.943		
	bB	BC		cB			aA			cB							
	Dark	0.07	1.18	-1.713	1.28	0.81	.871	1.37	1.10	.507	-0.58	0.38	-1.382	6.097**	.574		
		ab	C		bB			bC			aA						
	F값	3.508*	6.899**		8.015***	2.592		10.808***	1.134		6.348**	.313					

L. S.D 김장경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서츠톤은 a>b>c, 타이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었으나 성에 관계없이 공동된 반응을 보였다. 즉 비비드, 라이트톤 타이와는 조화되지 않고 다크, 덜톤 타이와는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남자 대학생은 다크톤 타이와는 매우 조화되지만 비비드톤과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랑색의 라이트톤 서츠와 4가지 톤의 넥타이와 배색할 경우 여자 대학생은 타이의 명도 변화 즉 타이의 톤에 따라 조화감을 다르게 지각되었다. 비비드나 덜, 다크톤 타이와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나 같은 라이트톤의 타이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자 대학생은 타이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대생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고 특히 덜톤의 타이가 가장 잘 조화되고 덜>다크>비비드톤 타이순으로 조화된다고 평가하고 같은 라이트톤 타이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라이트톤 서츠에 비비드 타이를 조합할 경우 남·여 모두 조화가 잘 된다고 지각하였으나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비비드 서츠에 라이트 타이를 배색할 경우는 부조화 배색으로 지각하여 성에 관계없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파랑색 덜톤의 서츠를 4가지 톤의 넥타이와 배색할 경우 여자는 넥타이의 명도 변화 즉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을 다르게 지각하였다. 덜톤의 서츠와 다크톤의 타이가 가장 잘 조화된다는 공동된 반응을 보였고 덜, 비비드, 라이트톤의 타이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자는 다크>덜>비비드톤 타이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라이트톤의 타이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남·여가 공동된 반응을 보였다. 남·여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톤의 서츠에 같은 톤의 넥타이를 배색할 경우 여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성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다크톤의 서츠를 4가지 톤의 넥타이와 배색할 경우 여자는 넥타이의 명도 변화 즉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같은 톤인 다크 넥타이의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비비드, 라이트, 덜톤 타이와는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유사한 톤인 덜톤 서츠와 4가지 넥타이톤의 조합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어떤 톤의 넥타이와 조합해도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넥타이 톤 변화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내재로 여자는 서츠와 타이의 톤이 동일한 경우 즉 비비드와 비비드, 라이트와 라이트, 덜과 덜, 다크와 다크의 배색은 부조화로 지각하였으나 남자는 비비드와 비비드, 라이트와 라이트는 부조화로, 덜과 덜, 다크와 다크의 배색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남·여간에 차이를 보였다.

2) 서츠색의 톤 변화에 따른 남·여 대학생의 조화감 지각

파랑색의 비비드톤 넥타이와 4가지 톤의 서츠와 배색할 경우, 서츠의 톤 즉 서츠색의 명도 변화에 따

라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셔츠의 명도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남·여 모두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톤의 타이는 다크나 라이트 셔츠와 조합하면 조화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덜톤의 셔츠와 조합에서는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라이트톤의 넥타이를 4가지 톤의 셔츠와 배색할 경우 남·여 모두 셔츠톤에 관계없이 라이트톤 타이는 다크톤의 셔츠와 조화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톤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셔츠톤이 비비드나 라이트, 덜톤이면 넥타이톤이 밝은 라이트톤일 때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셔츠의 명도 변화 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덜톤의 넥타이를 4가지 톤의 셔츠와 배색할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자는 셔츠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자는 다크, 라이트, 비비드의 셔츠와는 조화되고 같은 톤인 덜톤의 셔츠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덜톤의 넥타이는 어떤 톤의 셔츠와도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라이트 셔츠와 배색될 때 가장 잘 조화된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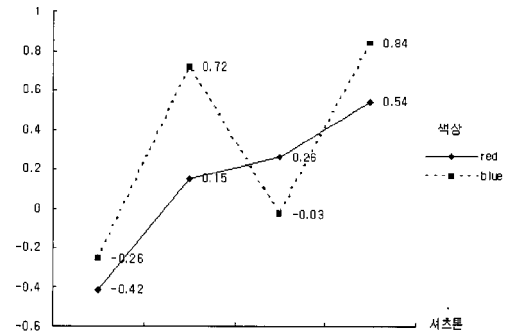
다크톤 타이를 4가지 톤의 셔츠와 배색할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자는 셔츠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감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다크톤의 타이는 덜, 라이트, 비비드 셔츠와는 조화되고 같은 다크톤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어떤 톤의 셔츠와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셔츠톤의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셔츠와 넥타이의 톤은 톤 배색이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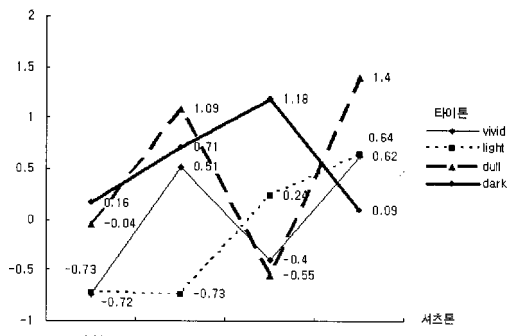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의 4가지 단서가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셔츠톤과 넥타이톤은 조화감 평가에 주 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색상이 난색인

빨강보다 한색인 파랑색이 조화감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색상은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었으나 셔츠톤과 상호작용하거나, 셔츠톤과 타이톤, 또는 셔츠톤과 성별과 3원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복에서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 간의 유의적인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3>,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먼저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색상이 빨강일 때는 셔츠톤이 다크톤, 덜톤, 라이트톤의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색상에 관계없이 셔츠색의 톤이 다크, 라이트일 때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비비드톤일 때는 조화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고 라이트톤과 덜톤은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여 색상이 빨강일 경우 라이트, 덜톤 모두 조화되지만 색상이 파랑인 경우 라이트톤은 매우



<그림 3>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4>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톤과 타이톤의 상호 작용 효과.

〈표 4〉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이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화감		MCA		조화감	
		평균제곱합	F값			평균제곱합	F값
주효과	색상(A)	6.860	3.256	색상	Red	-.09	.06
	셔츠톤(B)	40.360	19.155**		Blue	.09	
	타이톤(C)	22.867	10.853**	셔츠톤	Vivid	-.56	
	성별(D)	.036	.017		Light	.22	
2원 상호 작용 효과	A×B	6.210	2.947*	타이톤	Dull	-.11	.24
	A×C	.660	.313		Dark	.47	
	A×D	5.017	2.381		성별	Vivid	
	B×C	20.909	9.923**	Light		-.37	
	B×D	2.984	1.416	Dull		.27	
	3원 상호 작용 효과	C×D	2.265	1.075	Multiple R ²	Dark	
A×B×C		7.657	3.634**	Multiple R		남자	.00
A×B×D		8.613	4.088**		여자	.00	.00
A×C×D		1.219	.578				
4원 상호 작용 효과	B×C×D	3.123	1.482				
	A×B×C×D	2.454	1.165				

* $P < .05$, ** $P < .01$.

삼 조화되고 덜톤은 부조화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색상이 빨강색일 때보다 파랑색일 때 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므로 조화감 지각에 톤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톤과 타이톤의 상호 작용 효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셔츠톤에 따라 넥타이 톤간에는 조화감에 대한 평가가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톤이 비비드톤일 때는 다크톤의 타이만 조화되고 비비드, 라이트, 덜톤의 타이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셔츠톤이 라이트일 때는 덜톤의 타이가 가장 조화되며 다음으로는 다크톤, 비비드톤의 타이 순으로 조화되고 같은 톤인 라이트톤의 타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셔츠톤이 덜톤일 때는 다크톤의 타이가 가장 잘 조화되고, 라이트톤의 타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셔츠톤이 다크톤일 때는 4가지

톤의 타이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셔츠와 유사톤인 덜톤의 타이를 가장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셔츠톤이 다크톤일 경우는 타이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비해 셔츠톤이 라이트, 덜, 비비드일 경우는 타이톤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비비드톤의 타이는 라이트, 다크톤의 셔츠와 잘 조화되나 비비드와 덜셔츠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라이트톤의 타이는 덜, 다크셔츠와 조화되고 비비드, 라이트셔츠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덜톤의 타이는 라이트, 다크톤의 셔츠와 조화되나 비비드나 덜셔츠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다크톤의 타이는 덜, 라이트, 비비드, 다크톤 셔츠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다크톤의 타이는 셔츠톤간의 조화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에 비비드, 라이트, 덜톤의 타이는 셔츠의 톤에 따라 조화 정도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복의 셔츠와 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색의 3속성 중 명도만 다르게 하였다. 남성복 중 셔츠와 넥타이에 빨강, 파랑색을 각각 동색이 되도록 한 후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시켜 셔츠와 타이의 톤을 다르게 조합한 32개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및 남·여 대학생의 지각 반응에서 성별의 차이, 그리고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빨강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보면 16개 배색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의 수는 여자 대학생 10개, 남자 대학생 10개로 동일하여 조화 영역의 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여 모두 비비드톤 셔츠에 비비드톤 타이, 라이트셔츠에 비비드, 덜, 다크톤의 타이, 덜톤 셔츠에 라이트, 다크톤 타이, 다크톤 셔츠에 비비드, 덜, 다크톤 타이가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고, 남·여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톤 셔츠에 비비드 타이의 배색을 여자는 조화되는 것으로, 남자는 부조화로 지각하고 다크톤 셔츠에 라이트 타이를 여자는 부조화로, 남자는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성별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덜톤 셔츠와 비비드 타이의 조합에서 남·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보면 16개 배색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의 수는 여자 대학생 9개, 남자 대학생 12개로 차이를 보여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조화의 범위가 넓었다. 남·여 모두 비비드톤 셔츠에 덜, 다크톤 타이, 라이트셔츠에 비비드, 덜, 다크톤의 타이, 덜톤 셔츠에 다크톤 타이, 다크톤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덜톤 타이가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고, 남·여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톤 셔츠에 덜톤 타이, 다크톤 셔츠에 다크톤 타이의 배색을 여자는 부조화로, 남자는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성별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덜톤과 덜톤의 조합에서는 남·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톤 온 톤 배색에서 색상이 차지하는 면적에 관계없

이 조화되는 톤 조합은 빨강색에서는 라이트-덜의 조합과 덜-다크의 톤 조합이며, 파랑색에서는 비비드-다크의 조합과 덜-다크의 톤 조합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덜-다크, 다크-덜의 톤 조합은 색상에 관계없이 톤 온 톤 배색시 조화되는 조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파랑색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한 비비드 셔츠에 다크 타이, 다크 셔츠에 비비드 타이의 톤 조합을 빨강의 톤 배색에서는 남·여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이들 톤 조합은 같은 톤 조합이라도 색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여 모두 색상에 관계없이 비비드 셔츠와 라이트 타이의 조합은 부조화로 지각되고 면적이 뒤바뀐 라이트 셔츠와 비비드 타이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비비드와 라이트톤이 조합될 경우 면적에 따라 차이를 보여 빨강이든 파랑이든 셔츠는 라이트톤으로, 타이는 비비드톤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치마·저고리의 조화감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서는 조화된다는 빨강색의 라이트와 덜톤의 조합은 한복의 배색에서도 한국 여대생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의복 유형에 관계없이 조화되는 톤 조합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덜톤과 다크톤의 조합은 톤의 면적에 관계없이 한복 배색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리고 셔츠와 넥타이는 대체로 넓은 면적인 셔츠에 밝은 톤이, 좁은 면적인 타이에 어두운 톤이 오는 것이 조화되며 명도 차가 큰 경우 위치가 바뀌어도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한복의 치마 저고리에서는 명도 차가 큰 경우 넓은 면적에 어두운 톤이, 좁은 면적에 밝은 톤이 오는 것이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의복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셔츠와 넥타이는 둘다 얼굴 가까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여 톤의 명도에 따른 면적이나 무게감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나 한복에서는 치마저고리의 명도 차가 큰 톤 조합의 경우는 자연의 법칙상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것이 위에 있는 경우가 안정감을 준다³⁸⁾는 이론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복의 상하의에 어떤 색이라도 같은 톤끼리 배색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셔츠와 넥타이의 조합에서는 같은 비비

38) 금기숙, "조선 복식미의 탐구," *복식* 14호 (1990), pp. 167-183.

드톤끼리의 조합이나 같은 다크톤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같은 색과 같은 톤이 상하로 넓게 의복 전체에 배색되면 어울리지 않으나 큰 면적 안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의 배색 즉 상의만의 배색에서는 선명한 비비드톤이나 짙은 다크톤처럼 강한 색상은 동일하게 배색되어도 조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동일한 톤 조합이라도 의복 유형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조화감은 적용되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톤 온 톤 배색의 조화감 평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서츠톤과 타이톤으로 나타난 반면에 색상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색상은 서츠톤과 또는 서츠와 타이톤과의 상호작용으로 지각 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츠톤과 타이톤은 독립된 정보로 작용함은 물론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쳐 서츠와 타이의 배색에서 톤이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의 영향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남성복의 서츠와 타이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보면 서츠톤이나 타이톤, 색상이 하나로 묶어져 전체적인 조화 정도가 결정되고 이러한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특성과 주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sch³⁹⁾의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을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서츠와 넥타이의 배색에서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준 톤 온 톤 배색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배색 유형을 달리하여 톤 온 톤 배색,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무채색간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배색 유형이라도 의복 형태에 따라 조화감 평가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의복 유형을 달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급화·개성화·다양화를 추구하는 남성복 시장에 기초적인 색채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

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강경자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3보)-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7호.

강경자, 임지영 (1994).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권 5호.

고을한, 김동욱 (1999).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서울:미진사.

급기숙 (1990). “조선복식미의 탐구.” *복식* 14호.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1*. 서울:교문사.

김소영, 양숙희 (2000). “세기말 남성패션에 나타난 표상성.” *복식문화학회지* 8권 2호.

김수석 (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지구문화사.

김운경, 이경희 (2002).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4호.

남비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권 3호.

박순천, 이순홍 (2002).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 디자인(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1호.

박순천, 이순홍 (2003).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 디자인(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1호.

박영희 (2004).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이미지와 신호도.” *복식* 54권 4호.

박은경, 홍지원 (2003).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넥타이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넥타이 길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1호.

사이즈코리아 (1997). 국민표준체위조사. <http://sizekorea.ats.go.kr/>

송선옥, 이인자 (2000).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39) Asch, S. 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1946), pp. 258-290.

- 유송옥 (1990).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 이민선 (2003).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3권 6호.
-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 이은영 (1992).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 이호정 (1997). *패션디자인*. 서울:교학연구사.
- 이효진, 김주연 (2003). “백타이에 반영된 패션트렌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학술대회지*.
-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조필교, 정혜빈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셔츠, 백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권 6호.
- 추선형, 김영인 (1997). “녹색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계획.” *복식* 31호.
- 近江原太郎, 兒玉晃, 細野尙志 (1972). “美術家による調和感評価の類型化.” *日本色彩學會 第2回大晦講演論文集*.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 Birren, Faber (1934). *Psychology Answers the Problem of Color Harmony*.
- Itten, Johannes. (1996). *The Art of Color*. NewYork: Reinhold Pub.
- Libby, William Charles (1981). *색채와 구성식 감각*. 이양자 역. 서울:미진사.
- Winakor, G. and R. Navarro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